

협회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현시점의 주요 과제와 IT업체의 주요역할 파악을 위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정보통신산업 주요업체(매출액, 종사자수 기준) 표본 940개 업체 중 총 744개 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'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업체의 주요역할'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응답업체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 92개, 정보통신기기업체 271개 업체, 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체 381개 업체이다.

협회 조사연구팀

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

IT업체의 주요역할

1.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가능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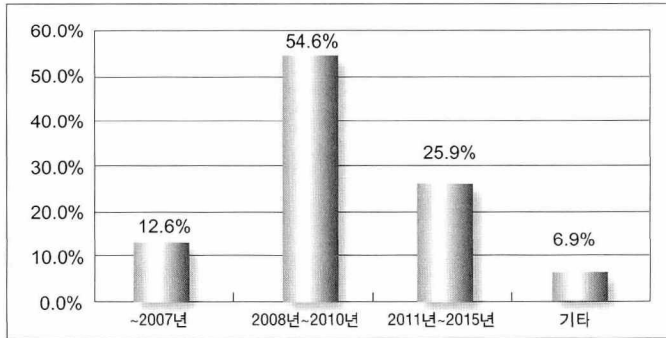
국민소득 2만불 달성 가능시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2008년~2010년이 54.6%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들어선 이후 14년~16년의 기간이 흐른 뒤로 나타났다.

다음으로는 25.9%가 2011년~2015년(17년~21년)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, 현정부 임기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2.6%로 가장 적었다. 기타사항으로는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거나, 예측이 불가능하며, 시스템개혁이나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.9% 제기되었다.

[표 1] 각 분야별 2만불 달성시기 예상

구 분	정보통신 서비스	정보통신 기기	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	합 계
~ 2007년(現정권이내)	17.4 %	13.3 %	11.0 %	12.6 %
2008년~2010년(14년~16년)	52.2 %	49.1 %	59.1 %	54.6 %
2011년~2015년(17년~21년)	27.2 %	29.9 %	22.8 %	25.9 %
기 타	3.2 %	7.7 %	7.1 %	6.9 %
합 계	100.0 %	100.0 %	100.0 %	100.0 %

* 기타 : 2030년 이후, 예측불가, 현재상태로는 불가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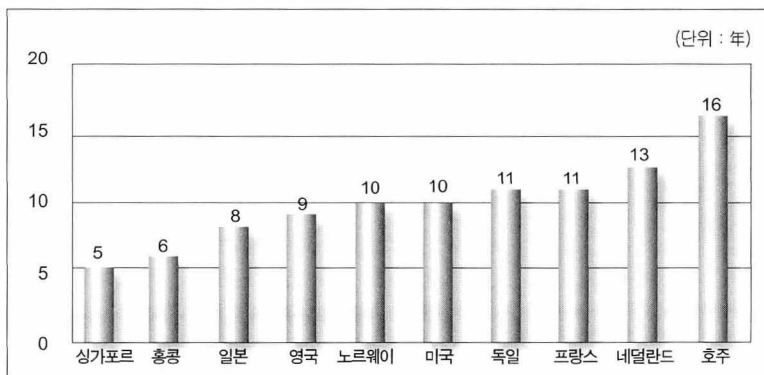


현재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까지의 장애요인으로는 노사분규, 집단 이기주의, 높은 세율, 기술력 저하도, 미래 성장요소 투자부진, 좁은 시장 등이 제기되었다. 한편, 싱가포르, 일본, 영국,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까지 도달하는 평균기간이 10년으로 나타났다.

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(5년)나 홍콩(6년)이 일본(8년)에 비해 빠른것으로 나타났으며,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1년이, 네덜란드는 13년, 호주는 16년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.

[표 2] 주요국가의 국민소득 1만불 → 2만불 달성기간

국 가	싱가포르	홍콩	일본	영국	노르웨이	미국	독일	프랑스	네덜란드	호주	한국
기간	5년	6년	8년	9년	10년	10년	11년	11년	13년	16년	?



2.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현시점에서 중요시되는 과제

국민경제 부문에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현시점에서 중요시되는 과제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 등을 통한 기술혁신이 29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노사화합이 18.3%,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, 윤리경영 등의 구조개혁이 17.3%, 창조력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이 11.0% 순으로 조사되었다. 그 외로는 이공계 정부지원 확장 및 이공계출신 우대가 7.3%, 국가균형발전 7.3%,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이 7.0%, 기타 2.4%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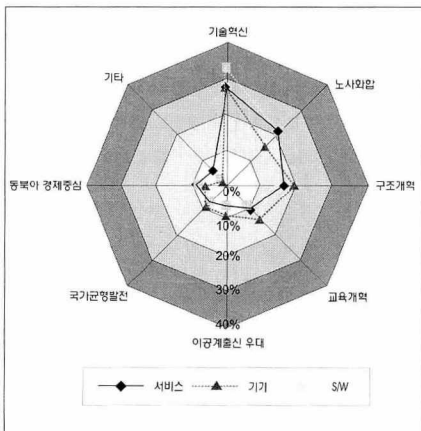
기타사항으로는 경기부양, 정치개혁,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서비스 향상 등이 제기되었다.

이는 신정부가 내세운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'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'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진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일치하였으나,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화합,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[표 3]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중요과제

구 분	정보통신 서비스	정보통신 기기	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	합 계
기술혁신(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 등)	27.2 %	32.8 %	27.6 %	29.4 %
노사화합	20.7 %	21.4 %	15.5 %	18.3 %
구조개혁(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)	16.3 %	15.1 %	19.2 %	17.3 %
창조력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	9.8 %	8.1 %	13.4 %	11.0 %
이공계 정부지원 확장 및 이공계출신 우대	5.4 %	5.9 %	8.7 %	7.3 %
국가균형발전	6.5 %	6.3 %	8.1 %	7.3 %
동북아 경제중심(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등)	8.7 %	7.7 %	6.0 %	7.0 %
기 타	5.4 %	2.7 %	1.5 %	2.4 %
합 계	100.0 %	100.0 %	100.0 %	100.0 %

* 기타 : 경기부양, 정치개혁,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서비스 향상 등



- ▶ 정보통신서비스 : 기술혁신(27.2%) → 노사화합(20.7%) → 구조개혁(16.3%) → 교육개혁(9.8%) → 동북아경제중심(8.7%) → 국가균형발전(6.5%) → 이공계출신우대(5.4%), 기타(5.4%)
- ▶ 정보통신기기 : 기술혁신(32.8%) → 노사화합(21.4%) → 구조개혁(15.1%) → 교육개혁(8.1%) → 동북아경제중심(7.7%) → 국가균형발전(6.3%) → 이공계출신우대(5.9%) → 기타(2.7%)
- ▶ S/W및컴퓨터관련서비스 : 기술혁신(27.6%) → 구조개혁(19.2%) → 노사화합(15.5%) → 교육개혁(13.4%) → 이공계출신우대(8.7%) → 국가균형발전(8.1%) → 동북아경제중심(6.0%) → 기타(1.5%)

3.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IT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요역할

IT산업 관점에서 향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IT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요역할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이 44.4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는 설비(시설)투자 확대 15.6%, IT수출산업 14.8%, 정보통신산업(IT)내의 노사안정 10.8%, 이공계출신 우대 6.9%,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창출 5.9%, 기타 1.6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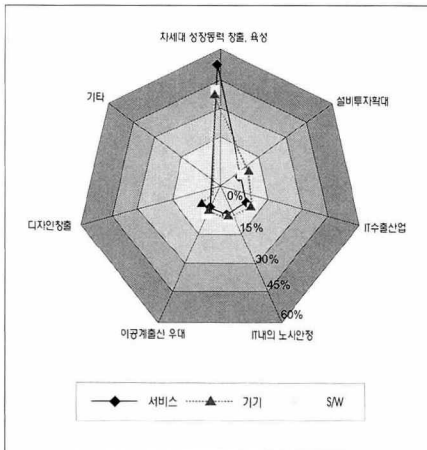
기타사항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한 깨끗한 입찰질서 확립, 새로운 아이템 개발, 창조적인 R&D 등이 제기되었다.

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80년대 이후 반도체, PC, 통신장비 및 단말기, LCD 등 고도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산업을 대체할만한 차세대 IT전략품목 창출·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통신장비의 포화현상으로 IMT-2000 등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시 등을 통한 설비(시설)투자 유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외마케팅 지원, 법인세 및 특세세 인하, 환율안정 등의 IT수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표 4] IT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역할

구 분	정보통신 서비스	정보통신 기기	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	합 계
차세대 IT전략품목 창출·육성	55.4 %	44.3 %	41.7 %	44.4 %
설비(시설)투자확대	13.0 %	14.0 %	17.3 %	15.6 %
IT수출산업	13.0 %	12.9 %	16.5 %	14.8 %
정보통신산업(IT)내의 노사안정	8.7 %	12.2 %	10.2 %	10.8 %
이공계출신 우대	5.4 %	8.5 %	6.0 %	6.9 %
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창출	2.2 %	5.5 %	7.1 %	5.9 %
기 타	2.3 %	2.6 %	1.2 %	1.6 %
합 계	100.0 %	100.0 %	100.0 %	100.0 %

* 기타 : 공정한 입찰, 아이템개발, 창조적인 R&D 등



- ▶ 정보통신서비스 :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(55.4%) → 설비투자확대(13.0%), IT수출산업(13.0%) → IT내의 노사안정(8.7%) → 이공계출신우대(5.4%) → 기타(2.3%) →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창출(2.2%)
- ▶ 정보통신기기 :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(44.3%) → 설비투자확대(14.0%) → IT수출산업(12.9%) → IT내의 노사안정(12.2%) → 이공계출신우대(8.5%) →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창출(5.5%) → 기타(2.6%)
- ▶ S/W및컴퓨터관련서비스 :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·육성(41.7%) → 설비투자확대(17.3%), IT수출산업(16.5%) → IT내의 노사안정(10.2%) → 이공계출신우대(6.0%) →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창출(7.1%) → 기타(1.2%)